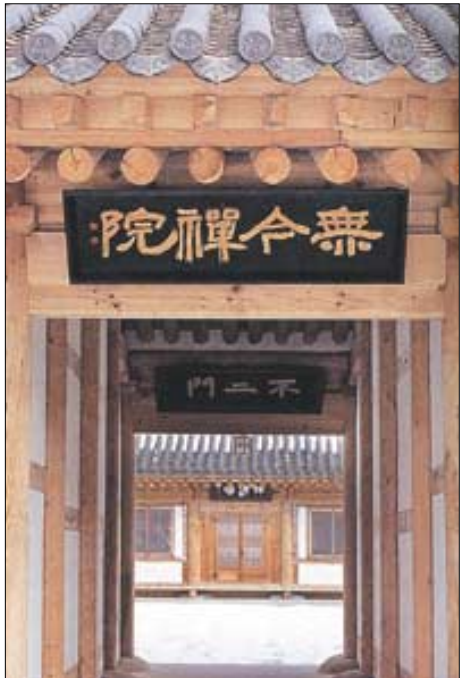


‘절간이야기’

무산 오현 스님 지음  
고요아침 / 9천원



◇오현 스님이 회주로 있는 백담사 무급선원.

‘무급선원에 앉아  
내가 나를 바라보니’

기는 별레 한 마리가  
몸을 뒹다 오그렸다가

온갖 것 다 잡아먹으며  
배설하고  
알을 슬기도 한다’

- 내가 나를 바라보니 -

# 옛날이야기 · 법문 같은 시

백담사 만해죽전을 통해 만해 스님의 가르침을 오늘에 되살리는 작업을 펼치고 있는 백담사 무급선원 회주 오현 스님. 스님은 시인이다. 최근 나온 <절간 이야기>는 시력(詩歷) 35년에 걸친 오현 스님의 작품세계를 조망하고, 스님이 걸어온 독특한 시 세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 책에는 시 같기도 하고, 옛날이야기 같기도 하며, 법문 같기도 한 32편 ‘절간이야기’ 연작 시와 구도자로서의 삶과 깨달음을 노래한 30여편의 시가 설악산의 3사인 백담사, 선홍사, 낙산사의 아름다운 사경과 함께 펼쳐진다. 특히 연작시 ‘절간이야기’에서 오현 스님은 일상에서 만나는 절 주변 이야기를 산문시를 통해 담담하게, 조금은 능청스러운 화법으로 들려준다.

‘절간이야기 1’에는 새벽 예불이 끝난 뒤 승방의 군불 때는 부복처사의 3대에 걸친 이야기가 부복처사의 입을 통해 전달된다. 할아버지는 양산 통도사 극락교 그 큰 돌덩어리를 익산 미륵사에서 혼자 야밤중에 들어다 놓았으며, 아버지는 밀양 표충사 대웅전 대들보를 짊어지고 왔다. 짊어지고 오다 지게까지가 부러져 운명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운명하면서도 스님을 말씀할 잘 웃으라고 당부한다.

‘8’에는 금릉 계림사의 일흔이 된 노 석수장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11’에서는 어머니에게 매를 맞고도 종아리가 아프지 않을 것을 한하여 우는 육상(陸常)의 이야기가 나오며, ‘12’에서는

고창읍내 쇠전거리에서 대정(大釘)을 만들어 파는 늙은 대장장이, ‘15’에서는 낙산사 원통보전 측대 밑에서 소주잔을 훌쩍훌쩍 거리는 여든 살의 존 노인, ‘17’에서는 주문진 앞 바다에서 만난 늙은 어부, ‘19’에서는 자갈치 어시장의 야즈매 보살,

‘20’에서는 새벽 찬바람에도 불구하고 종지기를 고집하는 종두(鐘頭), ‘21’에서는 절에서 하루 밤 유숙한 어떤 촌유(村儒)와 절에 들어온 지 달포도 안된 김행자(金行者), ‘22’에서는 시충(屍蟲)까지 나오는 생면부지의 시신을 정성스레 염습(殮襲)한 늙은 염장이, ‘27’에서는 덕사의 산지기를 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미숙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이다. 작은 일에 기뻐하고 슬퍼할 줄 아는 보통 사람들이다. 오현 스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 그들의 어법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인지를 은연중에 깨우쳐 준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이지엽 씨(경기대학교 한국동양어문학부 교수)는 “32편의 ‘절간이야기’ 연작은 오롯한 오도(悟道)의 마음을 담고 있어 어느 작품이고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 생이런 무엇이며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삶이 과연 향기로운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회적으로 들려준다. 거의 모든 연작시가 평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라고 평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 구도자의 삶과 깨달음 노래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이지엽 씨(경기대학교 한국동양어문학부 교수)는 “32편의 ‘절간이야기’ 연작은 오롯한 오도(悟道)의 마음을 담고 있어 어느 작품이고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 생이런 무엇이며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삶이 과연 향기로운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회적으로 들려준다. 거의 모든 연작시가 평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라고 평하고 있다.

른 관심을 늘 끌어왔던 저자는, 문학을 하느라고 잃어버렸던 식물학자의 꿈을 이 책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다.

“꽃의 빛깔, 향기, 모습에 황홀하다. 아울러 생명의 신비에 몸을 떨지 않을 수 없다. 이 원초적인 느낌이야말로 우리의 태어남의 의미로까지 이어진다. 그러므로 꽃 한송이에서 우주를 본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우리를 사랑이 우주에 닿아야만 완성된다고 믿는 까닭이다.”

학문적 차원의 식물학자가 아니라, 식물 하나하나 마다에 깊이 스며 있는 우주적 존재의 실상을 바라보는 혜안을 터득한, 또다른 차원의 어떤 것을 저자 스스로가 발견하고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에 담긴 글들 통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은자 기자

## ‘우리것으로 철학하기’

한상우 지음  
현암사 / 1만2천원



# 우리문화 정체성 확립의 길 제시

오늘날 우리가 학문의 한 영역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철학’이라는 말은 그리스말의 번역어이다. 철학적 사유는 진행의 모든 과정에서 논리라는 선형적 도구들에 맞추어 가야 하는 까닭에 대개 딱딱하고 복잡한 일계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철학은 보통 사람들에게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기 쉽고, 일상의 삶과는 동떨어진 ‘의미의 세계’를 구성하는 경향이 짙다.

열림과 연대가 확장되는 문명사적 전회의 21세기를 맞아 우리 사회에도 철학의 지평을 넓히는 철학 이야기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상우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최근 저서 <우리것으로 철학하기>에서 ‘우리 것’은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다. 우리 사상의 원천인 ‘하늘’에서 현대의 대중가요까지, 그리고 정약용의 철학사상에서 고스톱의 놀이규칙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그는 다각도로 조명을 던진다. 한상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내면세계에 바탕과 뿌리로 남아있는 ‘한국적인 것’의 원형 같은 것을 확인하게 된다. 사물과 개념을 다루는 사유의 방식만이 아니라 사물과 마주하는 느낌이나 사람

들과 나누는 삶의 태도 등을 소재로 삼아 그는 ‘한국적인 것’의 특징을 굵은 붓으로 그려나 예리하게 찾아내고 평이하면서도 독특한 필치로 그려낸다.

노동과 자본,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 사이에 경계를 긋는 근현대 서양의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인류의 삶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예에서 보듯 대량살상무기에 못지않은 또 다른 비인간화의 위험을 안고 있다. 오늘날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화해와 공존의 새 시대 내세워진 꿈, 새 문명 건설하기의 철학적 물결이 일고 있지만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일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이 꿈꾸는 새 시대를 향한 반성은 토대에 대한 발본적 신사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인간과 우주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젖히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한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근현대 과학기술이나 인간의 삶을 반성하는 21세기적 신사고도 멀리 보면 이렇듯 기=개념화를 통해 분석하고 증명하며 추론하는 그리스 원류의 생각하기 방식의 또다른 변용일 뿐이다.

## 하늘·다산 사상서 대중가요까지 다각 조명

논리법칙을 준용하거나 구사하는 이른바 이성의 복잡한 사유를 거치지 않고도 한국사의 주제들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자연과 어울리고 남들과 함께하며 스스로를 안정되게 지탱하는 삶의 지혜를 지녀왔다. 한국적 삶의 지혜는 엄격한 형식적 법칙이나 방법적 도구들을 전제하지 않으며, 감각과 의지와는 구별되고 구분되는 지성적 사유의 영토 안에 머물지 않는다. 가치를 자연과 공유하는 감정, 그리고 생명을 사물과 나누는 의지가 한국적 삶의 태도에는 깃들여 있다. 한국적 사유, 한국적 감성은 사람과 짐승과 푸 나무와 돌덩이를 존재론적으로 가르지 않고, 이승과 저승을 시공간적 상호작용의 관계에 두지 않으므로써 두 세계 사이를 막힘 없이 넘나들며, 자연사물을 인식주관-행위주체의 저편에 있는 순수·단순 대상으로 상징하지 않는다. 자연사물에 내재한 귀신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저주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소통의 상호주체인 것이 한국적 의식의 실상이다.

19세기 말 이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인고와 시련의 비극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오랫동안 확산되

어 왔다. 한국사 전체를 인류의 침략(억압)의 연속 및 그로 인한 좌절(상실)의 연속으로 보려는 소극적·비관적 관점이 그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중민(衆民)과 원귀들의 땀을 흘리며 풀어나가는 무당 푸닥거리 곧 살림이것이 한국문화의 정수에 해당한다. 한국문화사에 대한 주제결석의 관점은 결국 자기 자신까지를 비하한다. 이런 문화적 병리현상의 원인과 처방을 한상우는 밝히고 보여준다.

한상우의 책은 한국문화에 담긴 힘과 건강성, 공존과 화해의 정신, 여유와 해학의 태도를 찬찬히 풀어 나감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긍지와 자신감이 실린 문화적 정체성을 일구어나가는 길을 제시한다. 그의 철학하기와 글쓰기는 한국문화의 고유성을 입증하고 실현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한국에 담긴 고유성-특수성을 살피고 인간과 세계에 실린 원천성-보편성을 아우르는 반성적이고도 실천적인 탐구가 그의 작업이다. 추상적 ‘인간’이 아닌 ‘나’와 ‘우리’의 참모습을 그려내는 한상우의 작업이 앞으로 더욱 왕성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유조하/총독대 철학과 교수

<우리것으로 철학하기>는 한국교원대 철학과 한상우 교수가 15년 이상 전국의 문화재를 탐방하고, 철학자의 깊은 눈으로 본 우리 문화에 대한 탐구서이다.

‘꽃’

윤후명 지음  
문학동네 / 8천5백원



“식물은 위대하다고 나는 강조한다. 그것은 우리 삶의 원초적인 뿌리에 닿아 있다.”

## 100가지 꽃 사랑 글 모음

시인이자 소설가인 윤후명(57)씨가 우리나라의 100가지 꽃에 대한 사랑의 글을 모은 <꽃> 이야기를 펴냈다. ‘윤후명의 식물 이야기’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꽃과 나무를 소재로 삼은 독특한 산문집이다.

있던 감자밭위의 감자꽃, <삼국유사>의 현화(玄花)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철쭉, 선(禪) 화두의 하나인 그 유명한 뜰 앞의 잣나무에 이르기까지 꽃과 나무에 대한 저자의 애정 과 관심은 끝이 없다. 10년 넘게 종

## 문학작품 속 꽃·어릴적 추억 등 담아

저자는 이 책에서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에 피어나는 꽃들의 개화시기와 식물학적 특성, 꽃에 얽힌 옛 이야기와 문학 작품속의 꽃 예찬, 어릴 적 추억 등을 이야기한다.

노루귀, 복수초 같은 야생화에서부터, 가난했던 어릴적 신물나게 먹

로5가 야생화 꽃장수와 친분을 나누며 직접 꽃을 키우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저자의 삶은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다. 그러나 어린 시절 꿈이 식물학자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고등학교 시절 원예반 특별활동을 하는 등 꽃과 나무에 대한 남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약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하신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인연이 되어 옛부터 금강산에서 전해오던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기에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그램에서 승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법제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긴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된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원종태고 보우구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저수 대진 합장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든 물어보세요' 방영

**영가천도 '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회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부터 온다!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 이중에 절반 이상이 영가의 영향으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자 내용**

**제1장 영가의 실제.**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제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장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중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제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의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  
천도재가 위령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전국에 조상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이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미련이 출세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 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창중 중에서 -  
\* **법당 및 요사채 불사 동참** [우리는행 551-215163-02-001 성거사]

대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거사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283번지(독립기념관 IC)  
041) 567-6820, 041) 567-6822

**제3차 한·중·일 국제 무차선 대법회 실황 "禪의 항연"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영상물**

“큰 가르침이 담겨 있는 작은 영상물이 진리에 목말라 있는 많은 불자들에게 감로수가 되기를”

**VTR**

- 서웅대선사·진제대선사 법문 및 법거량 (90분)  
- 보급가 : 2만원

**CD**

- 서웅대선사·진제대선사 법문 및 법거량 전체  
- 중국 정혜선사, 일본 종현선사 법문 및 법거량 주요장면  
- 보급가 : 1만원

보급문의 : 부산해운정사 051)746-2256  
전국 불교 용품점